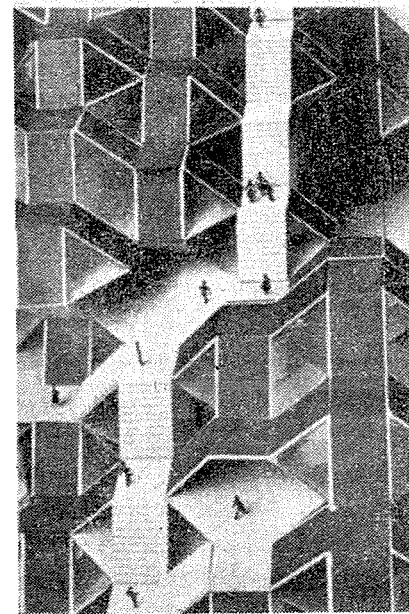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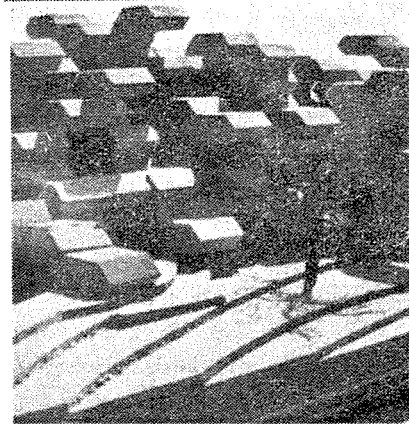


高密集住宅

—현재의 환경난 해결책—

Newsweek May 27, 1968

MOSHE SAFDIE



우리는 현재 엄청난 상태의 환경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대부분이 제대로 주택을 갖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도처의 도시들은 그 내부에서 파괴되고 있다. 즉 우리가 만든 길거리는 人海를 이루고 거대한 교통시설은 매우 복잡해지고, 무질서한 자연자원의 誤用으로 더럽혀진 自然, 이러한 것들이 이 땅 위에 있는 인간의 바로 그 存在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나 人口의 增加는 주택을 건설하는데 기술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인구 폭발에 대비한 주택준비에 있어서 인도의 예를 들어보면 서기 2,000년 까지에 2억 이상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주택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32년동안 每秒마다 한 가족을 수용할 주택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이만한 數의 건설은 현대의 기술로는 이를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정치구조에 상관없이 환경의 해결은 총 인구에 적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정적인면 뿐만아니라 도덕적인 의무감 역시 생각해야 한다. 일관작업과 자동시설 등 이러한 기술은 二重의 목적을 달성시킨다. 즉 우리가 지금 서로 밀집해서 가까이 살고 있을 때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주택생활의 안락을 보존하게 하며 또 개개인의 소득능력의 한도 내에서 알맞은 환경을 마련하게끔 하여 밀집된 공간에서의 능률과 경제생활의 增大를 가능하게 한다. 都市化는 우리들의 정치적인 제도 때문에 너무나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집단 사회에 너무나 의존되어 있는 개인에게 최소한의 상호의존하는 이완된 사회로부터의 변화에 조절을 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통일되고 작용력 있는 기능을 가진 지역적도시와는 관계 없이 오늘날의 도시적 권력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협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그만 공동사회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전체 도시지역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市의 세원을 검토해야 하며 또 그 세원을 우리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회의 서어비스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주택을 사려는 각 개인에게 균등하게는 거의 할 수 없는 재정면도 검토해야 한다. 도시지역의 토지 사용은 전체 공동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국민은 그토지 사용을 관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또 주택과 도시화에 전용할 GNP의 비율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종류의 환경을 창조하기에는 GNP가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들은 현재의 아이디어를 직접적인 계획으로 옮기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 새로운 공동사회를 건설하기 앞서서 건축가들이 만든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에이커” 당 10~100명의 가족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또 각 가정은 그들 소유의 넓은 공간, 즉 어린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 다니며 놀 수 있고 어떤 주택 지역에서나 수분 내에 쇼핑도 할 수 있고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그러한 공간을 가지게끔 해야 한다. 또 최대의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도시가 제공해 주는 모든 일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개개인이 되길 원해야 한다.